

한국 현대사의 미디어 재현과 신화 및 이데올로기

MBC-TV 다큐멘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의 남북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이규정** · 백선거***

본 논문은 한국 방송의 민주화 이후,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시안을 재현한 TV다큐멘터리의 의미와 사회적 함의를 밝혀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MBC 다큐멘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의 남북관련 이슈를 대상으로 기호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한국 현대사에서 재현된 이념의 갈등문제가 근본적으로 남북의 극대화된 이데올로기적 분화와 갈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과거 신문에서 보도한 '간첩단 사건'과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 다룬 것과의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과거 신문에서 보도한 '간첩단 사건'의 서사구조는 권력을 가진 지배계급의 시각에서 국가 안보의식의 강화 및 반공이데올로기의 확대 재생산의 결과를 가져온 반면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민중적 시각에서 피해자들과 소외된 자들의 경험과 기억을 재생하여 역사를 재현했다는 점을 밝혀냈다. 계열체 분석을 통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뚜렷한 이항대립 구조를 보이고 있음도 밝혀냈다. '간첩단 사건'에 대한 과거 신문보도가 '국가위기 신화', '반공·반북 신화', '대학생 숙죄양 신화', '정보기관의 독점신화', '사회 안정화 신화', '법치주의 확립 신화' 등을 생성시켜, 일반 국민들이 간첩을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레드콤플렉스 신화'에 함몰되게 했음을 확인하였다. 요컨대 과거 신문보도에서 표출된 신화와 이데올로기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 새롭게 재현됨으로써, '인권존중주의', '평화통일주의', '자유민주주의', '진보주의', '인본주의', '민족자주주의' 등 대안 이데올로기로서 저항적 이데올로기를 생성시켰음을 밝혀냈다.

주제어: TV다큐멘터리, 현대사 재현, 서사구조, 신화, 이데올로기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한국방송에서 TV다큐멘터리의 성장은 특수한 사회·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다. 1980대 말 군사 독재 정권의 몰락과 방송 민주화 바람은 제작방식에 있어서 비교적 자유로운 PD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을 제공하였다. 특히 1985년에 다큐멘터리의 제작편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방송에서 본격적인 다큐멘터리 대중화 시대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교양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방송사의 노력과 새로운 방송장비의 도입에 따른 기술적 한계, 그리고 정치 민주화 등 다양한 상황적 환경의 변화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다(김균·전규찬, 2003, 154~156쪽). 이와 같이 PD가 지식주체로서 생산한 TV다큐멘터리의 발전은 역사적 조건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물은 기존의 기지중심의 전통적인 방송저널리즘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홀(Stuart, H)에 따르면 미디어 텍스트는 생산영역의 산물이며, 상대적 자율성 속에서 배태된다고 한다. 또한 미디어를 통한 재현의 과정은 존재하는 의미의 '반영'과는 달리, 보다 능동적인 의미실천 과정이라고 한다(Hall, 1982/1996, 247쪽). 미디어 텍스트 생산은 계급 내에서 헤게모니를 획득하는

* 이 논문은 이규정의 2008년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학위 논문 중 일부를 발췌하여, 대폭 수정·보완하고 재구성한 것으로 백선거 교수의 지도하에 전체적으로 작성되었다.

** 경기대 영상학과 조교수(lgjeong0227@hanmail.net)

***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baek99@skku.edu)

생산주체의 의미화 실천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TV다큐멘터리는 생산영역에서 이루어진 의미화 실천의 결과물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TV다큐멘터리를 하나의 역동적인 장으로 볼 때, 제작주체인 PD와 수용자 및 국가권력의 관계 속에서 투쟁하며 다양한 위치를 갖는다. 그리고 텍스트 생산의 장은 역사적 국면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다양한 층위들과 상호작용하는 관계로서 볼 수 있다(Newcomb & Lotz, 2002, pp.62~73). TV다큐멘터리는 이후 심층 취재 역사물로까지 이어져 역사적 사실들을 재 발굴하거나 폭로하여 역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어 놓기도 하였다. 역사란 본질적으로 현재의 눈으로, 현재의 문제에 비추어 과거를 보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역사가의 주된 임무는 기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의 재평가에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Carr, 1961/1991, 32~33쪽).

MBC 다큐멘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우리 현대사를 정직하게 응시하자’는 취지로 기획되어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일제시대, 해방공간, 6·25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 최근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과 인물들에 천착했다. 본 연구는 TV다큐멘터리를 생산의 장으로서 한국 방송의 민주화 이후,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과 사안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현한 TV다큐멘터리의 생산적 의미를 조명하고자 했다. 특히 80년대 말 이후 제작된 TV다큐멘터리에 주목하는 것은 독재정권의 억압과 통제의 시대를 경험한 생산주체가 스스로 정체성을 분명하게 노정시키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금기시 되었던 주제들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보도하여 PD저널리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윤호진, 2005, 142쪽; 홍순권, 2002, 141쪽; 김동춘, 2002, 118쪽). 친일청산과 민족분단 및 북한문제, 한국전쟁과 한미관계, 레드컴플렉스(Red Complex)¹⁾와 민주저항, 국가폭력과 인권 문제 등 총 100편에 걸쳐 폭넓고 깊이 있는 심층보도를 통하여 한국 현대사를 재현하는 데 천착했고, 시청자들 반응은 매우 뜨거웠다(최영목·황인성, 2002, 65~67쪽). 따라서 이 논문은 과거 금기시 되었던 한국 현대사의 주제들을 재현한 MBC-TV다큐멘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를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이 한국사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었는지를 기호학적 연구방법에 의해 그 의미생산과정을 밝히고자 했다. 앞서와 같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 대한 사회문화적 평가를 배경으로 첫째, 한국 현대사의 ‘남북 관련 사안’이 당시의 언론보도와 TV다큐멘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 나타난 서사구조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했다. 둘째, 그러한 차이를 통해 드러난 ‘남북 관련 사안’에 대한 신화와 이데올로기적 의미의 차이가 한국사회에 어떠한 함의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TV다큐멘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를 하나의 기호학적 분석 텍스트로 보고 그것의 구성 방식을 심층적으로 검토했으며, 나아가 이 프로그램의 ‘소재’를 다룬 사건발생 당시의 언론보도와 시기적으로 뒤에 제작된 이 다큐멘터리의 이야기 구성방식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미디어의 사회적 의미생산과정을 추적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1) 이는 빨간색을 공산주의와 동일시하고, 빨간색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는 극단적인 반공주의를 가리키는 말로,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한 과장된 공포심과, 그 공포심을 근거로 한 무자비한 인권 탄압을 정당화하거나 용인하는 사회적 심리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2. 이론적 배경

1) TV다큐멘터리의 현실 재현과 의미구성

매스미디어는 선택적 재현을 통해 사회에 대한 지식을 선별적으로 구성하게 하고, 선택적 분류를 통해 제한된 상징과 생활방식을 제공하며, 결국에는 이데올로기적 통합을 통해 선택적으로 재현된 메시지들을 상식의 범주 안에서 조직한다(Hall, S., 1977, pp.343~344).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텔레비전 속에 역사는 상대주의적일 수밖에 없다. 객관적 시각은 불가능하며, 어떤 철학, 이념, 신념을 지니고 있는가에 따라 단지 역사의 기술과 해설의 방식이 있을 뿐이다. 텔레비전은 사회적 위치에 따라 역사를 재해석하고 평가하는 등의 재구성을 행한다(원용진, 2000, 105~106쪽). 이처럼 텔레비전은 사건의 내용을 기술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그 기술의 시점을 반영하여 이에 대한 집단적 기억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도 한다. 텔레비전 속의 역사는 가변적일 수밖에 없고, 자연히 집단적 기억 역시 변화한다(윤태진, 2000, 41~42쪽). 따라서 텔레비전에서 재구성하는 역사는 재현 상황의 사회적 역사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는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기록을 연출자의 시각과 의도에 따라 재구성된 영상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그리어슨(Grierson)이 “다큐멘터리란 내적 진실에 도달하기 위한 현실의 창조적 처리이다”라고 정의한 것처럼, 다큐멘터리는 연출자의 의도에 따라 선택과 배열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Ellis, 1989, pp.3~7). 즉 연출자는 자신이 의도한 영상표현 방법을 통하여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진실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영상이 선택되고 배열되는 방식은 연출자의 주관적 시각이 개입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큐멘터리에서 보여 지는 현실(reality)은 실제의 현실이 아니라 구성된 현실, 즉 연출자가 만들어낸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주는 역사는 여러 가지 요인의 개입에 의해 재현된 역사적 현실이 된다. 일반적으로 다큐멘터리는 사실성을 바탕으로 한 재현을 통해 사회를 반영한다. 니콜스(Nichols, B.)에 따르면, 여기에는 세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첫째, 다큐멘터리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익숙한 세상의 모습을 묘사하거나 비슷하게 보여준다. 둘째, 다큐멘터리는 재현을 통해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거나 대표한다. 마지막으로 다큐멘터리가 세상에 개입하는 방식은 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식처럼 세상을 재현한다(Nichols, 2001/2005, 29~32쪽)는 것이다.

그런데 드라마, 영화, 오락, 다큐멘터리 등 대부분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이야기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할 때는 구조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즉 사물과 세계를 인식하고 경험하는 기본적인 사고체계인 내러티브가 존재한다. 이러한 내러티브는 곧 “의미와 현실을 구축”하게 된다(McComas & Shanahan, 1999, p.36). 흔히 이야기하기로 풀이되는 내러티브는 과거에 발생한 사건을 ‘재건축’한다는 데 상징적인 의미가 존재한다. 이러한 연유로 내러티브 연구에서 ‘현실(reality)’과 현실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story)’를 구분 짓는 작업은 대단히 중요하다(심훈, 2005, 290쪽). 이 같은 내러티브 연구가 주목받은 것은 1970년대로 서사학(narratology)이라고 명명되기 시작하면서 학문으로서 이론적 틀을 갖췄으며, 영화와 텔레비전 분석을 통해 그 적용 범위를 다른 대중매체로 넓혀나갔기 때문이다. 현재 서사학은 언어학, 인류학, 기호학, 민속학, 영화학 등 여러 분야에서 텔레비전, 연극 음악 등의 서사 분석을 위해 폭넓게 활용되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코즐로프는

서사분석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프롭(V. Propp)의 민담연구를 미국 텔레비전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서로 매우 유사함을 밝히고 있다(Kozloff, 1987/1992). 특히 한국과 미국에서 사건과 스토리가 명백한 드라마, 다큐멘터리, 시트콤 등 텔레비전 서사연구가 1970년대 말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김훈순, 2004). 또한 여러 학자들은 사건의 결과 또는 인물이 포함된 일련의 뉴스 역시 내러티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Fiske, 1992; Guervitch, Levy, & Roeh, 1991). 즉 언론인들이 정형화된 공식을 통해 구조짓기를 함으로써 내러티브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다큐멘터리 역시 이야기체와 서사적 종결구조라는 내러티브 구조의 특성을 지니며, 현실을 구성하여 새로운 담론을 생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의미화 실천과정은 영상과 음향 등의 다양한 다큐멘터리 영상구성요소로 표현된다. 영상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는 어떤 대상을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기호가 반드시 사용되어지며, 이러한 기호의 해석이 사람들에게 공유될 때 상호작용이 가능한 의미가 생성된다. 영상 텍스트의 의미구조에 있어서 서사구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은, 1927년 프롭의 ‘러시아 민담의 형태론’의 연구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1955년 레비-스트로스(Levi-strauss)의 ‘구조주의적 신화연구’를 통해서 서사구조의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Andrew, 1984, p.78). 그는 인류의 원초적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신화의 연구 필요성을 강조하고, ‘신화’는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이야기로 신화연구를 통해 ‘이항대립’의 개념을 도입하였다(황인성, 1996, 22~23쪽). 이러한 이항대립은 인간의 인식작용이 빚어낸 문화질서로서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을 지니고 있다(김경용, 1994, 180~183쪽). 첫째, 기능은 범주화이다. 즉 인간들은 ‘선과 악’, ‘적과 친구’, ‘우익과 좌익’, ‘지배자와 피지배자’ 등으로 분류하는 흑백논리가 작용한다. 둘째, 이항대립은 의미생산의 기초가 된다. 이항대립의 쌍의 한쪽이 나머지 한쪽의 대립적 의미를 전제하고 자신의 의미를 만든다. 셋째, 기능은 구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이항대립 쌍은 ‘부분과 전체’의 관계이다. 즉 부분은 전체의 범위 안에서 의미가 있고, 전체는 그것의 의미를 부분에서 얻게 된다. 여기에서 구조란 대립적 관계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크스(Sykes, 1970)에 따르면 “신화란 추상적인 관념이 구체적인 형태로 표출된 것으로 어떤 관념들은 구체화하고, 정당화하는 이야기 형태를 지닌다”고 한다. 즉 신화란 세상의 모든 신화 텍스트로부터 추론된 어떤 실재이며, 그러한 추상적 실재의 발생은 또 다른 추상적 실재로부터 비롯된다. 신화의 발생은 생성을 함축하는데, 그 생성은 움직이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접하는 것은 신화가 아닌 신화 텍스트로, 신화의 발생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텍스트로부터 관찰해 내지 않을 수 없다(송효섭, 2004, 9쪽). 이러한 신화는 표상의 이미지임과 동시에 담론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화 제작 행위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단계는 사회현상들을 의미로 치환하는 일이다. 표상의 이미지는 바로 그 의미를 담아내야 한다. 둘째 단계는 표상의 이미지에 담긴 의미를 이야기로 풀어내야 한다. 이런 변환과정으로 생산되는 언술, 즉 어떤 특수한 이미지에 대한 언술을 신화라고 한다(김경용, 1994, 200~201쪽). 또한 신화란 사람들이 경외감 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가꾸어 온 신성한 이야기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상과 욕망의 상상적 분신인 신화적 주인공들을 통하여 존재의 본질을 투시하는 한편, 삶을 가로막는 장벽을 넘어서기 위한 분투를 거듭해왔다고 할 수 있다(신동훈, 2004, 5~6쪽).

요컨대 신화는 의미가 세계를 서로 배타적인 범주, 즉 문화와 자연, 남성과 여성, 흑과 백, 선과 악, 우리와 그들 등으로 나눔으로써 만들어진다. 소쉬르를 근간으로 레비-스트로스는 의미란 유사성과 차이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호교류의 결과라고 주장하였다(Story, 1993/1995, 112쪽). 그는 신화의

궁극적인 의미를 현실 문제와 관련된 의미를 구조화하고 이해하는 개념적인 방법인 이항 대립적 개념을 계열체적인 관계 내에서 발견하고자 했다(Fiske, 1990/1997, 213~214쪽).

바르트(Barthes, 1972)의 신화는 이차적인 기호학적 체계를 지닌다. 바르트는 소쉬르의 기표와 기의가 합쳐져 의미를 내는 방식을 일차적 의미화 과정이라 보았다. 이것을 바르트는 외연(denotation)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일차적 의미화의 과정에서의 기표와 기의의 연합이 이차적 의미화 과정에서 기표로 기능한다. 이러한 이차적 의미화 과정을 내포(connotation)라 불렀다. 이 단계에서 함축과 신화의 질서가 나타난다. 이러한 변형을 통하여 원래 의미된 현실은 신화의 형식으로 바뀌게 된다. 즉 기호 그 자체가 아니라 사회가 기의와 기표를 사용하고 평가하는 방법으로부터 파생한 문화적 의미의 전체 영역과 만나는 것이다(Fiske & Hartley, 1978/1997, 47쪽). 나아가 바르트는 신화의 개념을 사회계급에 바탕으로 하여 정의한다. 신화는 특정시기에 지배 집단으로 자리 잡은 지배계층을 위해 구축된다고 한다(Fiske, 1990/1997, 157쪽). 오늘날 이러한 신화는 바르트가 언급한 것처럼 신문, 잡지, 광고, 시와 소설 등 문필적 담론들이나 사진, 영화, TV뉴스, 스포츠, TV쇼, 강연, 교회나 법당에서의 설교 등 그림이나 구어에 의한 대화체 담론들에서 발견할 수 있다(김경용, 1994, 190쪽).

한 사회에서 매체가 특정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통제하는 과정에 주목한 것은 대표적인 마르크스 주의자인 알튀세(L. Althusser)와 그람시(A. Gramsci)에 의해서다. 이데올로기에 대한 개념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이데올로기인가에 대한 정의가 어렵다. 이데올로기라는 용어는 프랑스 대혁명 당시 철학자 트라시(Tracy)가 처음 사용한 이래, 19세기 20세기에 걸쳐 전 세계에 널리 보급되었다(백선기, 2004b, 5쪽). 초기 이데올로기란 ‘사고력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의미로 변형되어 왔다(Reboul, 1980/1994, 7쪽). 특히 알튀세에 따르면 경제 토대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단층 결정론을 부인하고 정치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영역이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자본주의 사회구조가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적 지배이데올로기를 유지·확대시키기 위해서 군대, 경찰과 같은 억압적 국가기구(Repressive State Apparatus)와 종교, 교육, 가족, 법, 정치, 노동조합, 미디어, 문화 등의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Ideological State Apparatus)들이 필요하다. 여기서 억압적 국가기구는 공적영역에서 물리적 폭력으로,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Althusser, 1971, pp.95~97).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매스미디어는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의 일원으로 자본주의 모순성 및 불합리한 점을 은폐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이념 및 우수성들을 부각시켜 강조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를 보다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백선기, 2004b, 11쪽).

이데올로기는 ‘당파성’, ‘집단성’, ‘은폐성’, ‘합리성’, ‘권력성’ 등의 속성을 내포한다(Reboul, 1980/1994, 22~26쪽). 그리고 위와 같은 속성은 기호들과 담론을 통해서 표출된다. 바흐친(Bakhtin)은 이데올로기 영역이 바로 이러한 기호의 영역과 일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백선기, 2004a, 145쪽 재인용). 예컨대 바흐친에게 있어서 기호와 이데올로기 사이의 과정은 세 단계를 거친다. 먼저 기호는 개인의식을 통해 표출되고, 이어서 이러한 기호를 통해 개인의식에 사회·이데올로기적 성격이 부가된다. 즉 기호로 표상된 이데올로기적 내용으로 의식이 채워져야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호를 통한 개인의식이 사회·이데올로기적 표출이 가능해지고 인간은 기호를 통해서 비로소 세상과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의 장은 그 자체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즉 그것은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갖는 구성·규제·사회적 투쟁의 장이다(Hall, 1985/1996, 100쪽).

따라서 담론 속에서 이데올로기는 명백한 의도성으로 표현되지만, 담론의 영역에서 밝혀내려 하지 않아도 그 실체가 드러난다(Fairclough, 1992, pp.90~91).

다큐멘터리는 제한된 시간 내에 역사적 사건을 선택, 배열하여 재현함으로써 수용자들에게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인식시킴으로써 사회적 담론을 생산해내는 메커니즘이다(김훈순, 2002, 97~98쪽). 이른바 다큐멘터리의 역사 재현은 현실의 틀 속에서 특정의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생산해 내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신화와 이데올로기의 개념은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에서 표출되는 담론의 물질성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다. 즉 언론 매체의 매개를 통해 표상된 이데올로기적 의미구조는 정치적이고 권력적인 실천이 될 수 있다. 특히 남북 분단의 상황 속에서 배제된 남북 사안에 대한 언론보도 담론은 언론사들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적 논조에 따라 자신들의 입장을 드러냄으로써 스테레오 타입에 의한 '타자'의 정체성으로 규범화하는 경향이 높다(백선기, 2004, 219쪽). 이러한 정체성의 구성은 권력관계 속에서 생성되는 지배이데올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 및 사안의 규범화 과정은 미디어가 수행하는 '담론적 실천'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특정 가치와 규범을 반복하고 강조함으로써 특정한 가치체계를 유지·확대·재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 한국 현대사의 과거사로서 '남북' 관련 사안과 TV다큐멘터리

인간의 폭력은 인류문명의 시작과 더불어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부족 간의 영토전쟁에서부터 종교의 차이까지 다양한 폭력의 양상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예컨대 브레진스키(Brzezinski)는 20세기에 정치적 이유로 학살당한 사람을 1억 7천여만 명 정도로 추산하였고(이삼성, 1998, 62쪽), 럼멜(Rummel)은 1900년에서 1987년까지 약 1억 7천명의 사람이 정부나 준정부 조직에 의해 학살되었다고 주장한다(Rummel, 1992).

이러한 폭력은 국가나 정부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의 현대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87년 민주화 이전까지 국가폭력의 점철사라고 말할 수 있다. 해방 후 이승만 정권은 단순히 '부당한 폭력'을 일삼는 차원을 넘어서서 폭력을 통해서 유지될 수 있는 '폭력국가'였다. 이런 상황은 90년대 '문민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계속되었다.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은 이승만 정권과 마찬가지로 일제 잔재 세력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계속적인 폭력을 행사해 온 폭력국가라 할 수 있다(홍성태, 2004, 102~104쪽). 더구나 외세에 의해 강요된 남북분단은 미국과 그에 결탁한 국내 지배세력의 취약한 정통성을 보완하는 데 매우 훌륭한 기반을 제공하였다.

한국전쟁에 의해 분단구조가 완결되기까지의 역사는 이후 '반공'이라는 가치가 위로부터 강요되어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힘을 발휘하기에 용이한 몇 가지 조건을 제공하였다. 첫째, 직접적인 폭력의 교환과 보복이 수반되는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치열한 전개과정에서 일반 민중들은 차츰 스스로 자신들의 가치관을 결정하려는 주체성을 상실하고 '반공'에의 선택을 강요당했다. 둘째, 군, 경찰, 관료 등 물리적 억압기구와 경찰의 보조기구인 우익청년단체들, 그리고 미군의 물리적 등 엄중한 강제력에 의한 폭력적 탄압은 이후 국가 강제력에 대한 '자포자기적 순응'을 유도하였다. 셋째, 해방 이후 계속된 탄압으로 인해, 특히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지배세력의 정치질서와 반공이데올로기 공세에 대항할 내부의 정치세력과 이데올로기는 모두 궤멸되거나 잠재화되었다. 넷째, 한국전쟁이라는 직접적 체험은 반공이 정당성을 지닐 수 있는 원천을 제공했다(한지수, 1989, 108~112쪽).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반공이데올로기가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확대 재생산 될 수 있었던 것은 ‘반공’이 국가권력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로서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적대적인 체제대립의 형태로 지속되어온 분단 현실 하에서 내재화된 냉전논리는 모든 이에게 극단적인 정치적 태도의 표명을 강요해왔다. 즉 “남한의 동조자=반공=자유민주주의=선(善), 북한의 동조자=용공=공산주의=악(惡)”이라는 지극히 단순하고 이분법적 도식 사이에서 양자택일만이 가능했던 것이다. 결국 반공이데올로기 지배의 실제적 결과는 자유민주주의의 철저한 파괴로 나타났고, ‘반공’을 통한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수호 논리가 아닌 허구성은 현실에 의해 증명되어온 것이다(한지수, 1989, 123쪽).

역사적으로 볼 때 반공이데올로기는 체제내화·제도화 과정을 거쳐 한국사회의 내적 지배논리로 자리 잡게 된다. 이승만 정권은 외압적 반공이데올로기의 확산을 꾀했으며, 박정희 정권은 5.16 쿠데타 명분이 반공으로, 이후에 실제적·내재적 반공이데올로기의 구축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이어 전두환 정권은 안정과 질서, 안보와 성장을 최우선의 가치로 강조함으로써 박정희 정권의 지배이데올로기를 계승하고 있다. 노태우 정권은 합법적 집권과 법적, 제도적 절차 면에서는 민주지향성을 지니고 있었지만, 군부세력의 실권 장악이라는 점에서 유사 민간화 된 군부 권위주의 정권으로 볼 수 있다(안승대, 2007, 42~43쪽).

이후 사회주의정권의 붕괴, 남북관계의 해빙, 민주정부의 등장은 지배이데올로기에 있어서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정권 안보이데올로기이자 체제유지의 이데올로기로 기능해 온 반공주의가 서서히 이완, 해체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문민정부 이후 반공주의는 중요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기능을 점차적으로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한국방송 초기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는 국가중심의 권위주의적 체제 유지를 위해 교양프로그램 강화라는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졌고, 이런 점에서 순수 다큐멘터리의 성격보다는 국가 권력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도구적 성격을 강하게 띠 수밖에 없었다(김균·전규찬, 2003, 147~149쪽).

한국 근·현대사를 재현한 TV다큐멘터리의 최초의 등장은 KBS가 1972년 봄부터 편성한 <실록 30년>이라고 할 수 있다. <해방 30년사 광복> 편을 시작으로 여수반란사건, 6.25동란 등의 현대사를 필름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자료들을 다수 발굴, 역사 다큐멘터리의 한 전형을 이루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다음해 가을 개편까지 정규 편성물로 인기를 모으기도 했다(남성우, 2004, 292쪽). 그밖에 계기성 특집 프로그램으로 <6.25발언>(1975), <판문점>(1978) 등이 방송되었다. 특히 1978년에 방송된 <다큐멘터리 한국30년>은 해방 이후부터 당시까지 민족의 발자취를 각 분야별 43편의 시리즈물로 제작, 방영하여 그동안 소실될 우려가 있었던 영상자료를 집대성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한국방송공사, 1980, 25쪽). 한편 TBC, MBC 등 방송사에서는 <적도를 가다>(1977, TBC), <북극을 가다>(1978, TBC) 등 무대를 해외로 넓히는 특집형 대형 다큐멘터리가 선보였고(남성우, 2004, 31쪽), 한국 현대사에 관한 다큐멘터리의 프로그램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1980년대는 정치적 대격변의 시기로 방송, 신문 등 언론환경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방송의 경우 기존의 공·민영 체제에서 KBS를 정점으로 하는 공영 양사체제로 개편하였다. 이 당시 방송의 방향성과 관련한 최대 화두는 ‘공공성’이었으며 이는 곧 오락성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교양프로그램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당연한 대안으로 지목되었다. 그리고 이는 다시 다큐멘터리성 프로그램의 강화로 이어졌다(김균·전규찬, 2003, 150~151쪽). 또한 1980년대는 TV가 컬러시대를 맞이하고 ENG²⁾가 등장하면서 다큐멘터리의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생성한 화면과 음향을

동시에 녹화하고 편집할 수 있어서 과거의 필름 제작에 따른 어려운 제작환경을 극복하게 되었다. 대부분을 야외촬영을 통하여 제작되는 다큐멘터리는 ENG카메라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하여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을 양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한국 현대사를 재현한 다큐멘터리도 여러 편이 제작·방송되었다. 특히 계기성 6.25 특집과 광복절 특집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여, <6.25 3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한국동란>(1980, KBS), <6.25 실록 1000일의 기록>(1983, KBS), <한국여성 40년>(1980, KBS), <실록 신여성 100년>(1986, KBS), <대한민국 임시정부>(1989, KBS), <6.25>(1980, MBC), <북위 38도선>(1984, MBC), <1940년대 역사의 순간들>(1985, MBC), <임을 찾아서>(1989, MBC), <망각의 세월>(1989, MBC) 등 다양한 현대사 관련 다큐프로그램을 선보였다. 그밖에 1989년 MBC의 <어머니 노래>, KBS의 <광주를 말한다> 프로그램은 광주 민주화 항쟁을 최초로 다룬 다큐멘터리로 한국 현대사 재현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민주화 이 후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는 국가권력의 독점 시대를 탈피하여 개방된 공간의 장으로서 새 출발을 시도하였다.

1990년대 들어 KBS와 MBC라는 2대 공영방송 체제에서 공·민영방송 체제의 부활과 문민정부 출현으로 TV다큐멘터리의 내용과 형식에서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먼저 정치·사회적 민주화는 다큐멘터리에서 다루는 소재의 제한을 무너뜨리고 성역 없는 영역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형식의 다양화로 표현의 한계가 극복되면서 다큐드라마 등 새로운 형식의 다큐멘터리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만큼 다양한 형식과 내용을 지닌 수많은 다큐멘터리가 전파를 타고 시청자들을 찾아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 현대사 관련 다큐멘터리 중에서 KBS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한국전쟁> 10부작과 <다큐멘터리 극장>, 그리고 MBC가 제작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건국 50주년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대한민국>(1998, KBS) 등 프로그램은 역사 다큐멘터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1990년 6월부터 방송된 <다큐멘터리 한국전쟁>은 한국 다큐멘터리사에서 한 획을 긋는 것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그 작품성이 인정된 바 있다. 당시 제작비 4억 8천만 원을 들여 세계 곳곳에 있는 한국전쟁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국내는 물론 세계의 한국전쟁 관련자, 학자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등 ‘한국전쟁’을 총 결산하는 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남성우, 2004, 36쪽). <다큐멘터리 극장>은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운동을 통한 방송 민주화와 1993년 ‘문민정부’의 출범 후 개혁과 과거청산의 분위기가 확대되면서,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1960~80년대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과 인물들을 소재로 1년 6개월간 방영되었다. 특히 다큐드라마 형태로 시청자들에게 중요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역사 해석과 토론의 장을 열어주었다는 긍정적인 견해가 제시되었다(최양수, 1993, 51~55쪽). 또한 이러한 새로운 다큐드라마의 형식은 텔레비전 매체를 통해 등장한 뉴저널리즘적 표현이라는 평가(강현두·김우룡, 1989, 227~228쪽)와 함께 한국 현대사 재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다큐멘터리 대한민국> 프로그램 역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해에, IMF체제라는 위기감 속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경제성장, 민주화, 분단 극복 등 민족적 과제에 대한 좌절과 성취, 희망과 절망을 비판적 시각에서 조명하려는 기획의도에서 방송되었다고 할 수 있다(남성우, 2004, 45~46쪽).

2) ENG(electronic news gathering)는 휴대용 텔레비전 카메라와 비디오카세트 녹화기(VCR)를 함께 사용하여 뉴스의 현장 취재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기존의 필름 카메라 대신에 비디오테이프를 사용하여 녹화 후 즉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뉴스 취재에서 기동성·동시성·경제성 등의 이점이 있다.

MBC 특별기획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해방 전후부터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정치적 격변과 사건의 진실들을 금기와 성역에 대한 도전을 넘어 정통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해 보겠다는 기획으로, 1999년 방송을 시작하여 2005년까지 100편의 아이템으로 방영되었다. 즉 현대사의 주요 사건을 거의 망라한 <다큐멘터리 극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 사회의 주요 쟁점에 대한 도발적인 문제제기를 도모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정길화, 2002, 150~152쪽). 또한 MBC는 1998년에 정부 수립 5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격동, 반세기의 통치자들>을 방영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1990년대는 KBS, MBC 2대 공영방송 체제에서 공·민영방송 체제의 부활과 문민정부 출현으로 TV다큐멘터리의 내용과 형식에서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정치·사회적 민주화는 다큐멘터리에서 다루는 소재의 제한을 무너뜨리고 성역 없는 영역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2000년대에 들어와서 주목할 만한 한국 현대사 다큐멘터리는 KBS가 2003년 방송한 <인물 현대사>로서 한국 현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을 통해 한국 현대사를 조명해본다는 것이었고, 그 구체적 대상인물로는 민주, 인권, 통일 등의 시대정신을 위해 헌신한 인물, 시대정신과 갈등했던 인물, 그리고 시대정신과 관련하여 한국 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통사람들이었다고 한다(이오현, 2005, 127쪽). 그리고 광복 60년을 맞아 우리 민족이 살아온 영욕의 현대사 60년을 재조명하고, 앞으로의 좌표를 확인하여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 <KBS 영상실록>은 그동안 KBS가 세계 14개국에서 구입한 동영상 자료를 토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다양한 각도에서 현대사를 다룬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밖에 KBS, MBC, SBS 지상파 방송사는 최근까지 계기성으로 현대사 관련 특집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해오고 있다. 이와 같이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는 시대의 정치·사회적 상황에 따라 국가권력의 지배담론과 시민사회를 위한 대안적 담론의 생산을 오기는 ‘의미 투쟁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TV다큐멘터리가 재현한 ‘한국 현대사’의 내용과 유형적 특성, 그리고 함축적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한국 현대사의 ‘남북 관련 사안’에 대해 기존서사와 TV다큐멘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의 서사구조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둘째, 그러한 서사구조의 차이를 통해 드러난 ‘남북 관련 사안’에 대한 신화와 이데올로기적 차이는 어떠한 함의를 지니고 있는가?

2)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1) MBC-TV다큐멘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의 분석방법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해방공간 전후부터 노무현 정부에 이르는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안을 소재로 하여 7년간 방송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역사 속에 숨겨진 진실을 심층적으로 추적하여 우리 사회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수많은 시청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호응했고³⁾, 적지 않은 언론매체로부터 프로그램 소개는 물론 매체비평 형태로 기사화되었다. 우리 현대사의 왜곡된 사건들의 진실을 파헤친 용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평가를 받기도 하였고⁴⁾, 99년 9월 12일 <제주 4·3>을 시작으로 2005년 6월 26일 100회 특집 방송 <7년의 기록>이 방영되기까지 100편의 다큐멘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우리의 무의식 깊숙이 지배해온 레드 콤플렉스, 국가폭력과 인권유린, 한미관계와 친일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을 다루었다. 그동안 총 5명의 책임PD와 28명의 PD, 그리고 30명의 작가가 투입되어 7년간 평균 시청률 7.6%(TNS 자료기준)를 기록하였고, 40여 차례 우수 방송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한국방송대상 작품상’, ‘삼성언론상’, ‘민주언론상 대상’ 등을 수상하였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민주화 이후 PD들이 능동적인 생산 주체로 등장하면서 권력의 비리와 부패를 폭로하고 과거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와 인권문제 등을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의 금기된 사건들을 공론의 영역으로 다시금 이끌어 내는 데에 이 프로그램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채백, 2002, 32~33쪽).

따라서 TV다큐멘터리의 한국 현대사의 재현의 의미를 연구하고자 하는 본 논문의 연구대상으로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매우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텍스트 분석을 위해서 남북 관련 사건들을 선정하였고, 그 가운데 극도로 금기시 되었던 사안인 <표1>과 같이 ‘간첩단 사건’ 관련 프로그램 세 편을 선정하여 범주화 분석, 계열체 분석, 서사구조 분석 등 기호학 분석방법⁵⁾을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특별히 위에서 언급한 세 편 of 사건은 과거 남북 냉전이데올로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서 각각 60년대, 70년대, 그리고 80년대 군사 독재정권하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대형 간첩단 사건으로 모두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연루되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건들이다. 더욱이 간첩으로 연루된 사람들이 대부분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사형 및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아 사회적 이슈로서 수년간 언론매체의 주목을 받아온 소재라는 점을 고려하여 선택하였다.

3) 시청자 게시판에 1만 6천여 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다(www.imbc.co.kr).

4) 1999년 12월 28일자 국민일보, 1999년 9월 14일자 대한매일, 2000년 5월 15일자 한겨레, 2000년 9월 5일자 문화일보

5) 이들 각각의 기호학적 분석방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연구결과 및 논의’에서 상세히 제시하였다.

<표 1>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중에서 분석대상 프로그램

순서	프로그램 명	기 획 의 도	방송일자	연출/작가
1	잊혀진 죽음을 -인혁당 사건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 이후, 1974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민청학련은 배후에서 조정하고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20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인혁당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본다.	1999.10.24	한철수/ 문예원
2	조국은 나를 스파 이라 불렀다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	1985년 안기부가 발표한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전모와 당시 간첩단 사건의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밝히고 수사과정에서 가혹한 고문을 받았다는 증인들의 삶을 추적해본다.	2001.6.8	이규정/ 김옥영
3	끝나지 않은 동백 림 사건	박정희 정권이 6·8부정선거 등으로 민심을 잃어가던 1967년 7월, 교수, 유학생, 예술인 등 200여명이 검거된 이른바 ‘동백림 거점 공작단 사건’이 터진다. 교포의 불법납치로 인한 국제적 망신을 불러일으킨 공안 조작 사건이라고 불리는 ‘동백림 사건’의 실체와 그 진실을 밝힌다.	1999.9.19	김학영/ 이진순

(2) 현대사 기존 서술에 대한 신문보도와 분석 방법

과거 정부에 의해 발표된 ‘간첩단 사건’ 중 ‘인혁당 사건’⁶⁾,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⁷⁾, ‘동백림 사건’⁸⁾ 관련 언론보도를 통해 서사구조와 신화 및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등 총 5개 신문 기사를 한국 언론재단의 종합기사 검색시스템 (KINDS)을 활용하여 검색하였다.⁹⁾ 검색대상은 제목과 본문을 포함하고, 검색 면종은 정치, 해설,

6) ‘인민혁명당사건’의 약칭으로 2차에 걸쳐 발생하였다. 제1차는 1964년 8월 14일에 발생한 사건으로 도예중, 양춘우 등 혁신계 인사, 언론인, 학생 등 41명이 가담하였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그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동당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반(反)대한민국정부 조직 인민혁명당(인혁당)을 조직해, 각계에서 인사(人士)를 모으면서 국가 사변(事變)을 기획했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1975년 4월 9일 발생한 제2차 사건은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1975년 4월 9일, 대법원은 도예중 외 7명의 피고인에게 사형 판결을 선고하고, 다른 피고인에게는 금고 1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사형수들의 사형 집행이 판결로부터 불과 18시간 후에 집행되어 대내외적으로 ‘사법 살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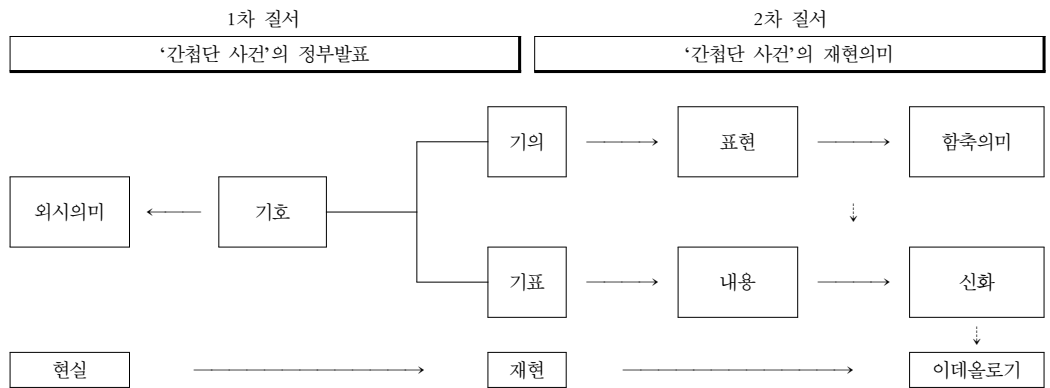
7) 1985년 9월9일 국가안전기획부가 구라과(유럽)와 미국에서 활동한 유학생들의 간첩활동을 고발한 간첩단 사건을 말한다. 사건의 핵심은 미국 웨스턴 일리노이대학에서 만난 양동화, 김성만, 황대권 등이 재미 북한공작원 서정균에게 포섭되어 간첩이 된 후, 국내에 들어와 극렬학생에게 공작금을 지원하고, 학원가 폭력시위를 주도했으며, 미문화원 방화사건에 참여하는 등 간첩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8) 1967년 7월 8일, 중앙정보부에서 발표한 간첩단 사건으로 ‘동백림’은 당시 동독의 수도였던 동베를린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대한민국에서 독일, 프랑스 등 유럽으로 간 194명에 이르는 유학생과 교민들이 동베를린(동백림) 소재 북한대사관을 왕래하면서 이적활동을 하고 일부는 입북 또는 조선노동당에 입당해 국내에 잠입하여 간첩활동을 했다고 발표되었던 사건이다.

9) ‘간첩단 사건’에 대한 미디어 분석을 위해 신문보도 분석에 국한한 것은 당시 방송은 철저하게 국가 통제를 받았고 (정순일·장한성, 2000, 88쪽), 현재 방송자료는 뉴스 등 일부의 단편적인 보도자료 이외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리고 신문보도에 있어서 5개 신문사는 각각 보수, 중도 또는 진보적 성향을 띠고 있었지만, 북한관련 사안 중 ‘간첩단 사건’에 대한 보도는 엄격한 정부의 통제 하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내용에 있어서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북한에 관한 정보는 철저하게 정부의 통제 하에 놓였고, 심지어 언론사에 기관원(중앙정보부 및 안기부 요원)을 출입시켜 언론인의 언론활동을 통제하였다. 더욱이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이 제3공화국 박정희정권에서 제정되어 전두환 군사정권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언론통제의 촉매제 역할을 해왔다. 두 법률을 동원하여 언론인의 반정부적 행위나 정부의 통제에서 이탈하는 행위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을 가했다(김해식, 1994).

종합, 사회, 경제, 특집 등 전면을 검색하였다. 검색기간은 사건이 발생하여 종결될 때까지로 하였다. 예컨대 ‘인혁당 사건’은 1964년 8월 14일 1차 인혁당 사건의 정부 발표부터, ‘2차 인혁당 사건’이 대법원 판결과 함께 형이 집행되어 신문에 기사화된 1975년 4월 11일까지 총 48건을 분석하였다.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은 1985년 9월 9일부터 1986년 1월 21일까지 총 16건을 분석했다. 그리고 ‘동백림 사건’은 1967년 7월 8일부터 1969년 4월 1일까지 총 50건을 분석하였다.

이들 기사들에 대해 통합체 및 계열체 분석을 시도하였고, 레비-스트로스와 바르트를 거치면서 생성 발전된 ‘신화 분석’과 ‘이데올로기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신화 분석은 바르트의 시각과 피스크(1987)의 현실 3단계 분석방법 및 백선기의 신화분석(2004)을 복합적으로 준용하여 적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방법의 틀은 <그림 1>과 같다.



출처 :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김경용, 1994, 166쪽과 『Television Culture』, Fiske, 1987, p.5에서 재구성.

<그림 1> ‘신화분석’의 바르트 모형과 피스크 모형 합성모형을 통해 본 ‘간첩단 사건’의 의미 생산

4. 연구결과 및 논의

1) 시대상황에 따른 ‘간첩단 사건’ 재현의 서사 및 의미구조 변화

‘인혁당 사건’,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 ‘동백림 사건’ 등 세 편의 프로그램을 텍스트로 보고, 서사구조의 변화와 흐름을 분석하는 유용한 모델인 토도로프의 통합체적 서사구조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서사구조는 이야기가 시작되기 위해서 ‘안정된 상태’에서 외부의 힘(악당이나 사건)이 작용하여 혼란을 겪게 되고, ‘불안정한 상태’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다시 또 다른 힘의 작용에 의해 새로운 ‘균형상태’를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새롭게 확립된 균형 상태는 이야기가 시작된 안정 상태와는 유사하지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즉 ‘균형→힘→불균형→힘→균형’이라는 서사적 진행 체계의 구조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각각의 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혁당 사건’은 —<균형 : 개인주의적인 삶의 영위> → <힘 : 중앙정보부가 인혁당 사건 관련자를 국가 전복기도 혐의로 구속> → <불균형 : 인혁당 관련자

사형 및 집행> → <힘 : 유기족과 민주인사의 반발 및 대정부투쟁 전개> → <제2의 균형 : ‘인혁당 사건’은 국민들에게 잊혀 졌고, 증언과 자료검증 등을 통하여 사건의 정치의혹과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재심청구에 따른 무죄판결의 희망 등 새로운 인식을 제시함>— 이야기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서사구조는 사건을 중심으로 ‘균형상태’가 외부의 힘(안기부)으로 ‘불균형 상태’가 초래된다. 그러나 새로운 힘(가족 구명운동, 엠네스티)의 작용으로 새로운 ‘제2의 균형상태’를 맞이한다. 즉 <균형상태 : 유학생할> → <힘 : 안기부가 구미유학생 간첩단 관련자를 간첩혐의로 구속> → <불균형상태 : 법원의 사형 및 무기징역 선고> → <힘 : 가족 구명운동과 엠네스티의 도움> → <제2의 균형상태 : 사건 마무리와 새로운 증언과 망각의 벽 허물기>의 이야기 구조를 통해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과 변화과정을 보이고 있다. ‘동백림 사건’의 서사구조는 <균형 : 동포들의 조국의 평화와 민주화를 갈망하는 삶의 영위> → <힘 : 중앙정보부의 동백림 거점 공작단 사건 발표 및 구속> → <불균형 : 법원의 사형 및 무기징역 등 선고> → <힘 : 독일정부의 항의 및 유럽각지에서 인권유린 규탄대회가 벌어짐> → <제2균형 : 사건관계자 석방 등 사건 마무리와 조국통일의 희망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이야기 구조를 지니며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TV다큐멘터리의 서사구조를 기존의 신문보도와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하기 위해 시퀀스별로 구분하여 프롭의 통합체 분석을 적용하였다(Fiske, 1987, pp.135~136).¹⁰⁾ 즉 여섯 단계로 분류한 기능모델을 기준으로 이야기 배열구조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이와 더불어 이야기의 서사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 서사물의 형태를 결정하는 표면구조와 심층구조를 드러내야 했다. 표면구조는 시간적인 인과관계로 연결된 통합체적 분석의 대상이 되고, 심층구조는 정태적인 논리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공시적 계열체적 분석이 필요하다(황인성, 1993, 424쪽). 따라서 영상텍스트의 계열체 분석은 텍스트 속에 감추어진 ‘이항대립’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의미는 확립된 관계에 기반하고 있고, 언어의 의미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대립관계이기 때문이다(Berger 1982/1990, 30쪽).

10) 본 ‘간첩단 사건’의 분석은 “서술이나 교육, 설득, 장려 등등의 목적을 가진 것들도 목적달성의 수단으로 암암리에 서사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 코즐로프(Kozloff, 1987/1992, 69쪽)의 주장처럼, 수년간의 기간을 통해 기사화된 신문보도 및 TV다큐멘터리가 전형적인 기승전결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통합체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처럼 서사구조를 가진 미디어 담론의 기호학적 분석은 1970년대 말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김훈순, 2004).

<표 2> '간첩단 사건'에 대한 미디어의 서사구조 방식 비교

서사 단계	인혁당 사건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		동백림 사건	
	기존서사	TV다큐	기존서사	TV다큐	기존서사	TV다큐
준비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이 북괴 지령을 받고 국가 변란 음모를 꾸몄다고 중앙정보부장 발표	인혁당 관계자들이 대법원의 판결이 난 후, 20시간 이내 사형 집행. 현재 그 사건의 진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진행	미국 및 서독에서 북괴에 포섭돼 국내에 잠입, 운동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요·획책한 유학생 간첩단 검거에 대한 정부 발표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갈망하던 젊은이들이 억울하게 독재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희생되지는 않았는가? 라고 문제 제기	과거 구라과에 유학한 대학교수와 학생 해외교포 기타 국내 대학생 등 194명이 연루된 대규모 간첩단 사건을 적발, 조사 중이라고 정부발표	동백림 간첩단 사건은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 있다'라고 문제제기
복잡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 중 일부 불순 공산세력의 책동에 이용당한 자들의 옥석을 가려 혼계하고 관용을 베풀 것이나, 불순분자들은 단호히 뿌리 뽑겠다는 정부 의지 발표	인혁당을 북괴의 사주를 받아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 조종하고 폭력혁명으로 노·농정권을 획책한 집단으로 규정	조사과정에서 개선의 정이 뚜렷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북괴 지령을 받아 간첩교육을 받고 입국한 유학생들 모두 구속함	미국 유학생들이 북괴 서적을 탐독하는 등 반외세 민족해방, 민중 폭력혁명 투쟁을 전개하여 남한에 사회주의 민족통일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다고 안기부 발표	사건 관련자들이 북괴로부터 공작금 수령. 귀국 후 서울대에서 민비연이라는 단체를 조직 후 간첩행위 시도 이들을 국내로 이송한 후 중앙정보부 조사 및 검찰로 송치	북괴가 외국 유학생 및 현지 교포들을 평양으로 유인, 세뇌공작을 하고, 귀국시켜 대한민국을 전복시도 했다는 사실을 정부 발표. 하지만 당사자들은 중앙정보부가 조작했다고 주장
사건 전환	인혁당 사건 관련자의 대부분 사형 및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 하지만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은 다양한 형량을 선고 받음	인혁당 관계자들의 사형집행 시행. 반면 사건 관계들은 수사 및 재판의 과행사실과 정부의 사건 조작 등 진실에 대한 의혹을 제기	유학생 간첩단 사건 관련자들에게 포섭된 국내 대학생 삼민주 등 반정부 투쟁 여러 단체 학생들을 모두 구속	학생 운동권과 간첩단 사건이 연계를 안기부가 발표. 반면 당사들은 이러한 정부 발표가 사전에 계획된 사건임을 주장	사건 관련자들이 대법원 형사부에 서 대부분 사형 및 무기징역 등 최고형을 선고받음	당사자들이 한국에 강제 연행되고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문과 폭행을 당함. 그리고 정부는 부정선거에 대한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 서울대 민비연을 동백림 간첩단으로 조작하여 발표함
갈등	형이 확정된 '민청학련' 관련자 12명은 재수감 후 석방. 그러나 인혁당 관련자 8명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다음날 서울 구치소에서 교수형으로 처형됨	인혁당 관련자들이 심한 고문이 있었다는 증언과 당사자들이 간첩임이 틀림없다는 정관계가 증언을 통한 진실 공방이 재현	대부분 사형 및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일부는 간첩방조로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음. 그리고 당사자들은 길게는 13년, 짧게는 3년을 감옥에서 보내고 1998년 8.15 특사로 석방됨	당사자들이 국가보안법에 근거하여 사형수와 무기수로 규정되지만, 고문과 폭력 때문에 간첩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들의 번복을 받아들이지 않음	국제사회의 비판은 물론, 서독의 사관 직원 추방 및 대한차관 중단 등 위협으로 대부분이 이듬해인 1969년에 특사, 형집행 정지 등으로 석방됨. 그리고 국내 대학생 서클 관련자들도 무죄로 석방됨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의 불법납치 및 인권유린에 항의. 관련자의 석방과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시위가 유럽각지에서 벌어짐. 그러나 그들은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사형 및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음

회복	국민들은 인혁당 관계자들이 북한 공산 정권과 관계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인혁당 사건은 수십 명이 연루된 간첩단 사건으로 한국 현대사의 기록으로 남음	진실을 전할 핵심 인물들은 없고, 오늘날까지 긴 세월 동안 가족들이 간첩의 굴레 속에서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음을 증언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을 통해 학생들의 민주화 요구와 통일의 열망을 잠재우고, 한편으로 학생의 좌경화 확산에 제동을 걸게 됨	국가보안법은 감옥에 갇힌 사람뿐 아니라 수많은 가정을 파괴함. 이혼은 물론 간첩이라는 낙인으로 취업도 할 수 없었던 이들을 ‘시대의 희생자’라고 규정함	국내 대학생 서클 관련자들은 무죄로 판명되고, ‘동백림 사건’을 통해 6·8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반정부 정서가 원상회복 하게 됨	사건 관련자들은 형 확정 다음해에 특사 및 형집행 정지 등으로 석방되고, 대부분이 귀화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고국과 등을 지며 살아감. 그러나 그들은 조국의 품에 돌아갈 것을 간절히 희망함
재인	‘인혁당 사건’의 보도를 통한 반공이데올로기 및 국가안보 의식이 강화됨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과 8명의 갑작스러운 사형집행에 대한 의혹 및 향후 재심 청구 등 남은 숙제를 제시함	국민들에게 반공이데올로기가 확대·재생산하는 기회를 얻었고, 정권 유지를 위한 국가 재abei테올로기를 강화하는 기회가 됨	몰수된 시간을 잊지 말 것과 그러한 희생을 기억하지 않을 때, 망각의 벽 뒤에서 또 다른 사람이 희생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남김	‘동백림 사건’을 통해 자연스러운 ‘반공’에 대한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반공이데올로기를 확대·재생산하는 기회를 맞이함	조국에 묻힐 수 없던 윤이상 선생이 하나 된 조국 땅에 편안히 잠들기를 희망하는 ‘평화통일’의 메시지를 전함

세 편의 이야기 구조 속에서 <표 3>과 같이 국가와 개인의 극단적인 대립구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알튀세의 억압적 국가기구인 중앙정보부, 군인, 경찰 등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가 대 개인’의 대립이 부각되고 있다. 즉 ‘국가권력(약) 대 소시민(선)’, ‘수호자(정부) 대 빨갱이(개인)’의 이항대립이 표출된다. 특히 ‘인혁당 사건’에서는 국가기관에 의해 사형당한 인혁당 관계자의 억울함과 비합리적인 법집행에 대한 진실규명을 호소하는 내용이 드러난다. 따라서 ‘가해자(은폐자) 대 피해자(진실규명자)’, ‘산재(삶) 대 죽은 자(죽음)’, ‘탄압(자) 대 저항(자)’이라는 대립항을 보여준다.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역시 ‘가해자(국가) 대 피해자(개인)’라는 명백한 이항대립 구조를 보여준다. ‘인혁당 사건’과 마찬가지로 국가권력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억압받고 통제되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표출시키고, 안기부 행위와 관련되어 ‘조작’, ‘고문’, ‘파괴’, ‘보안사찰’ 등과 같은 부정적 기호들이 표출된다. ‘동백림 사건’편에서도 ‘가해자(국가) 대 피해자(개인)’라는 이항대립의 구성을 보여준다. 국가는 정권의 안정을 위해 ‘동백림 사건’을 일부 조작하였고, 무고한 개인들에게 고문과 폭행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청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독재정권이 ‘동백림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여 무고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었고, 통일을 갈망하는 해외동포 사회를 분열시키는 한편, 교포들을 간첩으로 낙인찍음으로써 적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

<표 3> '간첩단 사건'의 이항대립 구조

기존서사		TV다큐	
선/정의/우호	악/불의/적대	선/정의/우호	악/불의/적대
국가(권력)	개인	개인	국가
수호자	빨갱이	사형수	법집행자
중앙정보부(안기부)	간첩/좌경화된 대학생	진실규명자	진실은폐자
법치주의	민주주의	죽은자	산자
국가안보	자유	민주주의	독재권력
반공주의	인권주의	자유/평화	국가안보/반공
우파·보수주의	좌파·진보주의	인권	국가안보
안보	통일	저항(자)	탄압(자)
친미	반미	진보	보수

이러한 이항대립 구조는 다큐멘터리의 영상 구성적 측면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가해자와 피해자 또는 피해자 입장에서 진술하는 전문가의 인터뷰를 연속적으로 맞대응하여 화면을 구성하고 있다. 여기서 피해자는 배경화면과 조명을 특수 처리하여 시청자 시선을 집중시켜 증언의 무게감을 높이거나, 한편으로 현장에서 인터뷰함으로써 역사적 증언의 무게감과 함께 진실성을 높이고 있다. 반면에 가해자는 로우 앵글 샷(low angle shot)으로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샷 1>, <샷 2>, <샷 3> 참조). 이러한 대립구도의 편집은 시청자들에게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프로그램을 역동적으로 이끌어 가는 효과를 준다. 그리고 이항대립 구조에서 어느 쪽이 진실인가를 파악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TV다큐멘터리에서 다양한 영상구성요소는 국가권력(가해자)과 사건 관련 당사자(피해자) 입장을 상징하는 영상기제로 사용되고 있다. 즉 국가 등 가해자는 ‘국가 수호자’, ‘간첩 체포자’ 등으로 의미 지고 있는 데 반해, 사건관련자 등 피해자는 국가에 대한 ‘저항자’, ‘구명 운동자’ 등으로 대비되면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대립적 구조는 영상화면 구성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샷 4>, <샷 5>, <샷 6> 참조). 국가는 악, 피해자는 선의 대립구조로 의미를 해독하게 될 것이다. 결국 국가와 개인의 이항대립적 구성화면은 ‘강자 대 약자’, ‘수호자 대 저항자’의 모습으로 시청자에게 각인시키고 있다. 따라서 독재 권력과 민중의 대립이라는 서사구조를 표현하는 영상이미지로서 독재에 대한 함축적 의미와 자유 및 인권을 찾기 위한 저항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국가안보의 지배구조에 따른 사회적 억압통치에 저항하는 신화를 형성한다. 이러한 신화는 ‘인권존중’,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 등의 이데올로기적 의미로 확장된다.

이와 같이 다양한 영상구성요소는 언어적 서사구조를 강화시키고, 뚜렷한 이항대립 항을 통해 새로운 의미구조를 생성한다. 그리고 언어표현으로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을 경우 여러 가지 영상재현기법이 동원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영상재현은 감성적 기의를 생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처럼 TV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전체적으로 언어적 내러티브와 영상재현이 상호작용하여 새로운 함축적 의미와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표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쏜 1>

<쏜 2>

<쏜 3>



<쏜 4>

<쏜 5>

<쏜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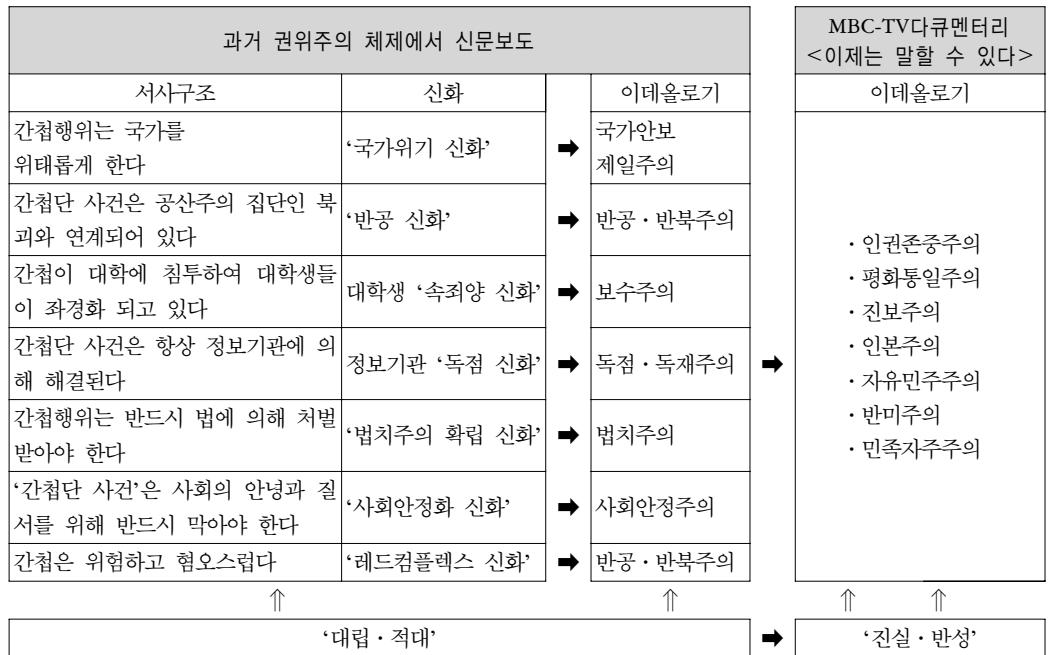
2) ‘간첩단 사건’에 대한 신화와 이데올로기의 변화와 그 사회적 함의

앞에서 이항대립을 근간으로 살펴본 ‘간첩단 사건’은 신화와 이데올로기 분석을 통해 기존의 신화와 이데올로기를 생성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그런데 이 같은 기존의 신화와 이데올로기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의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신화와 이데올로기로 대체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간첩단 사건’과 관련하여 과거 신문보도에서 표출된 신화 및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간첩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을 전복하여 국가의 위기를 불러왔다는 ‘국가위기 신화’가 나타난다. ‘간첩단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은 곧 국가가 위기에 처하도록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간첩단 사건’을 근절시키는 강력한 ‘국가 안보 제일주의’를 표방했던 것이다. 둘째, ‘간첩단 사건’ 관련자들은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북한에 의해 간첩교육을 받고 공작금을 수령하여 간첩행위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간첩단 사건을 통해 공산주의를 적대시하고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반공·반북 신화’가 나타난다. 이러한 신화는 ‘반공 및 반북주의’ 이데올로기로 표출되고 있다. 셋째, 간첩단 사건은 대학생들과 연계되어 ‘대학생 속죄양 신화’를 만들어 냈다. 간첩들이 학원에 침투하고 대학생들을 포섭하여 반국가 행위를 하도록 선동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질서와 국가안녕을 위해 대학생들이 좌경화되는 것을 차단해야 된다는 ‘권위주의적 보수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간첩단 사건은 모든 것이 국가 정보기관(중앙정보부, 안기부)에 의해 해결됨으로써 정보기관 ‘독점신화(특권 신화)’를 만들어 냈다. 과거 간첩단 사건은 정보기관에 의해 그 실체가 밝혀지고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동안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간첩단 사건의 해결사인 정보기관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오면서 권력 ‘독점주의’를 낳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간첩단 사건은 언제나 국가가 혼란한 시기에 발생함으로써 ‘사회 안정화 신화’를 배태하였다. 여기에는 사회의 불안정한 상태를 야기하는

간첩행위를 차단시켜서 사회 안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회 안정주의’가 내재해 있다. 여섯째, 간첩단 사건은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는 것으로 간첩행위는 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한다는 ‘법치주의 확립 신화’를 낳았다. 그리고 그동안 간첩행위를 한 사람들이 사형,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수많은 언론보도는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의미를 생산한다.

이처럼 ‘간첩단 사건’은 과거 언론보도를 통해 다양한 신화들을 생성하고, 확대·재생산함으로써 사회 속에서 이데올로기로 표상되게 된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국가안보 제일주의, 반공·반북주의, 보수주의, 독점·독재주의, 법치주의, 사회 안정주의 등의 이데올로기가 지배이데올로기로서 정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간첩단 사건’의 신화 속성 및 이데올로기적 의미구조 변화

반면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국가권력에 저항해온 사회적 약자의 시각에서 개인 중심의 서사구조와 피해자들의 억울한 희생과 기억을 재현하는 다양한 영상기호들의 선택과 배열을 통해서, 과거 언론보도에서 표출된 다양한 신화들을 허물어뜨렸다. 이를 통해 과거 언론이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했음을 입증하고, 독재정권의 폭력과 인권유린 등 불법행위를 밝혀내고, 국가보안법 철폐 및 개정을 강조하며, 정보기관의 조작과 고문을 폭로함으로써 대안 이데올로기, 즉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주의, 인본주의, 진보주의, 반미주의, 민족자주주의를 생성해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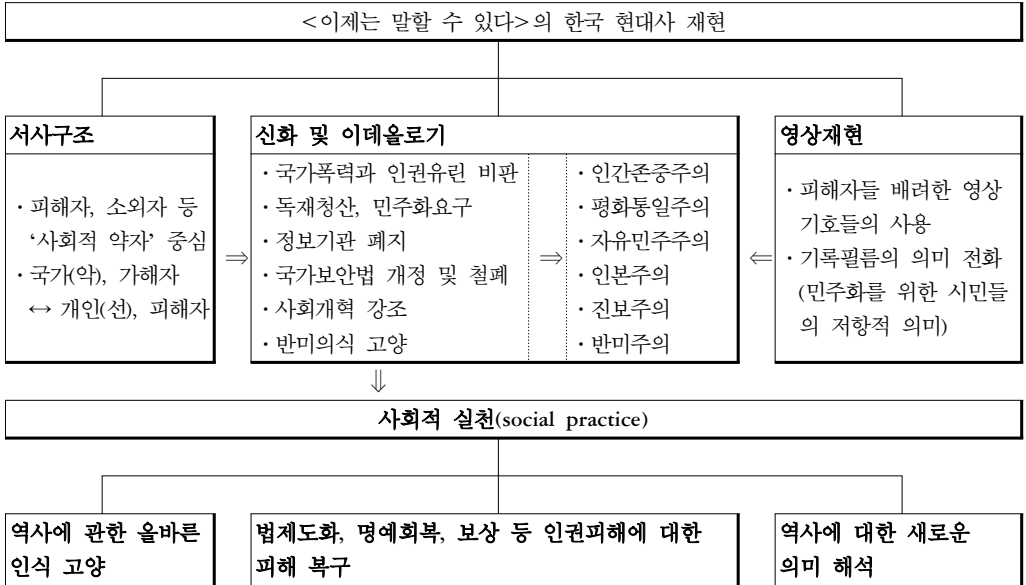
이와 같이 TV다큐멘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과거 권위주의체제 하에서 ‘대립’과 ‘적대’의 가치 지향적 이념과 사상을 배격하고, 지난날에 대한 ‘반성’과 ‘진실’의 복원을 최상위 가치로 삼아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림 2>에서 보듯이 <이제는 말할 수 있다>의 방영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표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이념적 대립과 갈등의 해소를 통하여

‘평화통일주의’라는 국민공동체적 가치의 구현을 강조했다. 둘째, 과거사 청산을 통한 역사의 복원과 사회정의의 실현을 촉구하는 ‘민족자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셋째, 이데올로기 지형의 확장으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진보주의’의 가치 실현을 추구했다. 넷째, 국가폭력과 인권유린 등 다양한 문제를 집중 조명함으로써 ‘인권존중주의’와 ‘인본주의’의 소중함을 인식시켰다. 이처럼 과거에 왜곡되었던 한국 현대사를 ‘승자’가 아니라 ‘약자’의 시각에서 재현함으로써, 역사적 진실의 복원과 재인식의 지평을 넓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논의는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TV다큐멘터리가 매우 중요한 장르의 하나로 자리 잡고, 공공성의 상징으로 평가되는 현 시점에서, 과거 지배이데올로기를 유포하는 수동적 객체에서 사회의 주체적 지식생산자로서 한국 현대사에 대한 재현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한국 방송의 민주화 이후, 일제 및 해방공간에서 노무현 정권에 이르는 한국 현대사의 다양한 사건과 사안을 재현한 TV다큐멘터리로서 과거 언론보도와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접근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사회에서 금기시되던 국가폭력과 인권문제, 권력비사, 반미 및 친일청산 문제 등을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재조명하였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과거 연구대상에서 소홀히 되었던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안들에 대한 미디어의 재현들을 분석하였고, 그것들이 지닌 사회적 함의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국 현대사에 관한 재현이 기존의 언론보도와 TV다큐멘터리 사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과거 신문보도는 국가권력의 유지와 안정을 위한 지배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역사적 사실을 재현한 반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피해자’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 예컨대 사회적 약자인 민중적 시각에서 한국 현대사를 재구성하였다. 또한 국가는 ‘가해자’ ‘악’으로 ‘타자화’(the other)하고, 개인을 ‘피해자 및 선’으로 ‘우리’(us)로 하여 명백한 이항대립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신문보도에서 표출된 신화와 이데올로기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 완전히 깨지고, 대안적 이데올로기들이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신문보도에서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적대관계를 고수하고, 간첩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법적용과 처벌을 주장하는 등 보수·우익적 이념과 사상을 견지하고 있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는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서 향후 평화통일의 대상으로 보고, 개인들을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라는 점을 부각시킨다. 또한 인권존중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역설하고, 나아가 사회의 개혁과 변화를 지향하는 진보주의적 가치와 이념을 강조한다. 특히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는 권위주의 체제 하의 ‘대립과 적대’를 지양하고 ‘평화와 인간중심’의 이데올로기를 지향하고 있다. 이 같은 한국 현대사 재현에 대한 언론매체의 획기적 변화에 있어서 한국사회의 정치·사회적 환경의 대변혁이 큰 몫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0년대 후반 민주화를 계기로 국가 권력의 사회 지배력이 크게 약화되고, 사회 전 부문에서 국민들의 투쟁의식이 확산되면서 언론매체의 대안적 담론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즉 다양한 의미투쟁의 장이 형성되고, 국가권력의 지배적 담론보다 민주사회를 위한 담론의 생산이 확산되면서 역사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대안 이데올로기 생성의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그림 3> ‘이제는 말할 수 있다’의 한국 현대사 재현이 갖는 의미

한편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현대사의 미디어 재현을 통한 직·간접적인 사회적 실천(social practice)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는 말할 수 있다>의 현대사 재현이 역사인식의 대중화는 물론, 피해자들을 위한 법제도화 및 명예회복과 보상 등 직간접적으로 사회적 실천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고양 및 새로운 의미해석을 통하여, 폭압적 근대화를 종식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민주사회로의 이행에 이바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요컨대 기존의 권위주의적 이데올로기를 해체하고, 그동안 왜곡되었던 역사적 진실을 복원함으로써 한국 현대사에 대한 재인식과 함께 새로운 사회적 인식 틀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다큐멘터리의 언술적 측면들에 대한 분석에만 의존한 한계가 있다. 이후의 연구에서 영상 미학적 분석과 함께 영상 기호와의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면 보다 풍부하고 명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Ⅰ 참고문헌

- 강현두·김우룡 (1989). 『한국 방송 편성론』. 서울: 나남.
- 김 균·전규찬 (2003). 『다큐멘터리와 역사』. 서울: 한울아카데미.
- 김경용 (1994).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 김동춘 (2002). ‘이제는 말할 수 있다’와 기억의 정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91~119쪽).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해식 (1994). 『한국 언론의 사회학』. 서울: 나남.
- 김훈순 (2002). 텔레비전 역사 다큐멘터리의 영상 역사 쓰기. 『영상콘텐츠 연구』 (87~115쪽).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_____ (2004). 텔레비전 서사 연구의 메타분석. 『방송연구』, 겨울호, 167~197.
- 남성우 (2004). 한국 TV 역사 다큐멘터리의 형식변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선기 (2004a). TV 뉴스 영상 재현의 의미구조 및 이데올로기 구조. 『기호학연구』, 16권, 243~307.
- _____ (2004b). 『한국 언론보도의 기호학』.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송효섭 (2004). 신화는 어떻게 생겨나는가. 『한국문화이론과 비평』, 제24집(6권 3호), 1~35.
- 신동훈 (2004). 『살아있는 우리 신화』. 서울: 한겨레출판사.
- 심 훈 (2005). ‘쓰나미’에 대한 한미 양국 간의 이야기 구조 서사 분석. 『한국언론학보』, 49권 6호, 286~314.
- 안승대 (2007). 이데올로기론에 따른 교육이념의 역사적 변천과정 분석. 『교육문제연구』, 제27집, 27~56.
- 원용진 (2000). 『텔레비전 비평론』. 서울: 한울아카데미.
- 윤충로·강정구 (1998). 분단과 지배이데올로기의 형성·내면화.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6호, 1~12.
- 윤태진 (2000). 텔레비전이 바라보는 한국의 현대사. 『프로그램/텍스트』, 3호, 37~70.
- 윤희진 (2005). 『2005 TV저널리즘의 이슈와 쟁점』.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오현 (2005).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생산과정에 대한 민속지학적 연구. 『언론과 사회』, 13권 2호, 117~156.
- 정길화 (2002). ‘이제는 말할 수 있다’ 4년 방송의 결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148~176쪽).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정순일·장한성 (2000). 『한국 TV 40년의 발자취』. 서울: 한울아카데미.
- 채 백 (2002). 텔레비전의 역사, 그리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14~39쪽).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최영목·황인성 (2002).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무엇을 담았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40~90쪽).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한국방송공사 (1980). 『다큐멘터리 한국30년』. 서울: KBS.
- 한지수 (1989). 반공이데올로기와 정치폭력. 『실천문학』, 가을호, 108~129.
- 홍성태 (2004). 국가폭력과 기억의 정치-폭압적 근대화를 넘어서. 『문화과학』, 통권 40호, 93~110.
- 홍순권 (2002). ‘이제는 말할 수 있다’와 한국 현대사의 재인식. 『이제는 말할 수 있다』 (120~145쪽).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황인성 (1993). 텔레비전뉴스의 이해를 위한 서사론적 접근. 『언론문화연구』, 제11집, 서울: 서강대 언론연구소.
- Althusser, L. (1971).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Essays*. (B.Brewster, Trans). New York : Monthly Review Press.(Original work published 1969).
- Andrew, D .(1984). *Concept in Film Theory*.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Barthes, R .(1972). *Mythologies* (A. Lavers Trans.). New York: Hill and Wang.(Original work published 1965).
- 정현 역(1995). 『신화론』. 서울: 현대미학사.
- Berger, A. (1982). *Media Analysis Techniques*. 한국사회언론연구회 매체비평분과 역 (1990). 『대중매체비평의 기초』. 서울: 이론과 실천.
- Carr, E. H. (1961). *What is History?*. The George Macaulay Trevelyan, Lectures Delivered in The University of Cambridge. 박종국 역 (1991). 『역사란 무엇인가』. 서울: 육문사.
- Ellis, C. Jack (1989). *The Documentary idea: A critical history of English-language documentary film and video*,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 Fairclough, N. (1992). *Discourse and Social Change*. New York: Polity Press.
- Fiske, J. (1987). *Television Culture*. London: Routledge.

- _____ (1990). *Introduction to Communication Studies*. London: Routledge. 강태완·김선남 역 (1997). 『문화 커뮤니케이션론』. 서울: 한빛.
- Fiske, J. & Hartly, J. (1978). *Reading Television*. London: Routledge. 이익성·이은호 역 (1997). 『TV읽기』. 서울: 현대미학사.
- Gurevitch, M, Levy, M., & Roeh, I. (1991). The global newsroom: convergences and diversities in globalization of television news. In Dahlgren & C. Sparks(Eds.), *Communication and citizenship* (pp. 195~212). London: Routledge.
- Hall, S. (1977). "Culture, media, and the ideological effects," in J. Curran, M. Gurevitch, and J. Woolcott(Eds.), 1977,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London: Edward Arnold.
- _____ (1982). The Rediscovery of 'Ideology': Return of the Repressed in Media Studies, in Michael Gurevitch et al.(Eds.), *Culture, Society, and the Media*. London: Muthuen, 56~90. '이데올로기'의 재발견: 미디어 연구에서 억압되어 있던 것의 복귀. 임영호 편역 (1996). 『스튜어트 홀의 문화이론』 (235~286쪽). 서울: 한나래.
- _____ (1985). Signification, Representation, Ideology: Althusser and the Post-Structuralist Debates,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vol. 2, no.2*. 91~114. 의미작용, 재현, 이데올로기: 알튀세와 후기구조주의 논쟁. 임영호 편역 (1996). 『스튜어트 홀의 문화이론』 (61~102쪽). 서울: 한나래.
- Kozoloff, S. R. (1987). 서사이론과 텔레비전. In R. Allen. (Ed). *channels of discourse* (67~108쪽). 김훈순 역(1992). 『텔레비전과 현대비평』. 서울: 나남.
- Levi-Strauss, C. (1958). *Structural anthropology*. New York: Basic Books. 김진욱 역 (1983). 『구조인류학』. 서울: 종로서적.
- McComas, K, & Shanahan, J. (1999). Telling stories about global climate change: Measuring the impact of narratives on issue cycles. *Communication Research, 26*(1), 30~57.
- Newcomb, H & Lotz, A. (2002). The production of media fiction in Klaus Bruhn Jensen. *A Handbook of Media and Communication Research*. London: Routledge.
- Nichols, B. (2001). *Introduction to Documentary*. 이선화 역 (2005). 『다큐멘터리 입문』. 서울: 한울아카데미.
- Reboul, O. (1980). *Langage et Ideologie*. Paris: P.U.F. 홍재성·권오룡 역 (1994). 『언어와 이데올로기』. 서울: 역사비평사.
- Rummel, R. J. (1992). *Nazi Genocide and Mass Murder*. New Brunswick, N. J : Transaction Books.
- Propp, V. (1968). *Morphology of the Folktal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황인덕 역(1998). 『민담형태론』. 서울: 예림.
- Story, J. (1993). *An Introductory Guide to Cultural Theory and Cultural*. 박모 역 (1995).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서울: 현실문화연구.
- Sykes, A. (1970). Myth in communic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20*, 17~31.
- www.imbc.co.kr
- www.kinds.or.kr

(투고일자: 2009.11.27, 수정일자: 2010.4.9, 게재확정일자: 2010.4.17)

ABSTRACT

Media Representation of Korean Modern Historical Incidents, and its Myth and Ideology: A Semiotic Approach on MBC-TV Documentary 〈Now we can tell〉

Gyu-Jeong Lee* · Seon-Gi Bae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representation of media on Korean controversial historical incidents and its myth and ideology. Especially the authors paid attention to the MBC-TV Documentary which had dealt with many controversial issues in Korean society. Those issues had never been dealt by other Korean media before it began to do. Three episodes about the South-North Korea related issues were selected as main object of this study and were analyzed with various semiotic research methods, especially, paradigmatic analytical method, narrative analytic method and mythical analytic method. As a main result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Documentary tended to represent such controversial historical issues very differently from the previous representations of old newspapers'. The old newspapers tried to establish old myths; that is, 'myth of national crisis', 'myth of anti-communism', 'myth of scapegoat of college students', 'myth of intelligent agency's monopoly', 'myth of social stabilization', etc, while the documentary changed to build up new myths; that is, 'myth of humanities', 'myth of peaceful unification', 'myth of freedom and democracy', 'myth of human rights, etc.' In short, it was concluded that the documentary was able to change some previous myths and ideologies through its changing representations.

Keywords: TV Documentary, Representation of Modern History, Narrative Structure, Myth, Ideology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Film & Visual Studies, Kyonggi University

** Professor Dept.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Sungkyunkwan University